# 전제 없이 편안하게 들어가자

## (계1:1~3)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전제 없이 편안하게 들어가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전제 없이 편안하게 들어가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두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함께 나누면서 진행될 텐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이 아마도 성경 중에서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에 이단들의 사상의 핵심의 뿌리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두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 이단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그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누가 들어서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걸 들고 나오기가 아주 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명약관화하게 진리 됨의 기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서들을 보면, 전부 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교회사 속에서 취해졌던 몇 가지 방법론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 들어갈 것이냐?
그게 소위 과거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영적 해석법, 이렇게 있습니다.
어렵지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그 해석이 구절구절마다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다 알고,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해석법의 내용을 다 알고 그 적용 단계를 다 살펴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올바른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을 논문으로 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은 아니잖아요?
그저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할머니도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즉, 미래적 해석법, 과거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영적 해석법,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이런 전제 없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바로 앞의 유다서까지 이제껏 성경을 볼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그 해석의 전제에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전제 없이 편안하게 들어가자'에서 '전제'라는 것은, 성경 어떤 책이든지 볼 때에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경말씀이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자는 얘기에요.
이 전제를 버리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제목에서 '전제 없이'의 전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을 취할 것이냐, 미래적 방법론을 취할 것이냐, 역사적 방법론을 취할 것이냐,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영적 해석법을 취했고, 루터와 캘빈은 역사적 방법론을 취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영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해석법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용어들을 요한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구에서 펼쳐질 역사의 사건들과 상응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유럽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면 이 유럽공동체를 이룬 것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매치시켜나가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리고 미래적 해석법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법입니다.

과거적 해석법은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사도가 밧모 섬에 유배가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요한사도가 살던 시점을 전후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적 해석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영적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다, 시대를 막론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거 다~ 어느 게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점검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방법을 택해야 될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여느 성경과 똑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 붙잡고, 그분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서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 문자 속에 들어있는 요한사도에게 계시해주실 때의 그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열어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절 한 절 짚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갖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냥 똑같은 책으로 생각하고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편안하게 전제 없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그리스도께서 드러내주시는 계시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계시는 뭡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 있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나는 내용들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얘기에요.
드러내 보여준다는 얘기가 가능한 거죠.
어디 있다는 얘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예수그리스도께서 드러내주시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그리스도의 증거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예수님 안으로 전달돼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중간에 요한을 세워가지고, 그 계시들을 집어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과 계획은 현금과 동일하게 쓰여 지는 자기앞수표와 같이, 비록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어나게 돼있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들에게 계시해주신다는 얘기는 그 종들과 연관이 되어있는 일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관련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체 종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뭐에요?
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식으로 성도나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식모누나가 저녁때가 돼서 저녁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종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식모누나를 사도요한 시대 때의 종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생각하지 않고 가족처럼 여겼지만, 밥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그때의 종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저녁에는 반찬을 뭘 할까요?’ ‘그래, 오늘은 가지찜을 한번 해보자, 가게 가서 가지를 사오너라’ 가지를 사왔어요, ‘가지를 씻어서 토막을 내라, 그리고 오이소박이 담글 때처럼 십자로 그어서 소금에 잠깐 절여놓아라’
그냥 모든 절차를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걸 기억하고 주인이 시켰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전역에 조직적인 박해를 가한 첫 번째 황제에요.
네로부터 박해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 박해들이 황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박해가 비조직적으로, 그리고 로마제국 전체로 보면 국부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로마제국 전체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국가정책으로 박해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 박해의 이유가 뭐냐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자신을 이 넓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 이루어진 로마제국의 황권을 더욱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황제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숭배라는 것은 황제가 신이고, 모든 로마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면 곧 법이고 생명이고, 알파요 오메가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절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황제의 종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지금 황제숭배를 강요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핍박과 박해와 생명을 앗아가는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전제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3절에서 곧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얘기라는 말이 지금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 맞지 않느냐, 사도요한이 밧모 섬에서 96년에 풀려나서 에베소교회에 와가지고 마지막 목회를 하고 돌아가신 게 100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뒤로 아직 2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한 이 내용을 재림과 연관시키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속히'라는 말이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썼다고 전제하게 될 경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속히'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선 우린 지금 1절에 매여 있는 거니까 재림을 전제하지

말고 생각하면, 속히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그렇게 황제숭배가 강요되고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인간세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지금 사도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속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에게 일어났고,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났고, 지금으로부터 천 년 전, 중세기 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19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과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느냐?
어떻게 연관 지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 일과 연관 지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어떻게 연관 지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시간과 연관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술을 받는데, 마취주사를 놓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수술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취전문의가 와서 척추 쪽에 마취주사를 놓는데, 주사만 놓고 아무도 수술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간호사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수술을 안 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말할 수 있을 때, 왜 수술을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수술이 끝난 지 8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내 몸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부터 그 의식이 일어날 때까지 이 8시간이 나에게는 없어져버린 겁니다.
시간이 멈춘 것이고 시간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여덟 시간이 흘러갔는데, 내 인격은 시간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대로 재림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사람의 상태,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관측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속히 임할 것이, 3천

년 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4천 년 전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요한이 잘못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바울도 그렇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치 당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한 이것이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사건을 느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상태를 봐야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증명된 것 아닙니까?
관측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시간을 바라볼 때는 시간이 멈춰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루 동안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구에서는 20년 30년이 흘러가버린 겁니다, 내 친구들이 다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념 자체가 상대성이론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사도요한은 이미 시간의 상대성을 계시를 통해 성령을 통하여 하늘이라는 차원과 마음이 교통을 하면서 시간의 상대성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속히 이루어지는 일로 봤다고 해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히 이루어질 일들 속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말도 개인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고, 3절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역사적 지평에서 일어날 일들도 포함하고 있고, 내 개인에게 일어날 일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제되어지는 네 가지 해석 방법을 취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말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즉 나 개인에게서 일어날 일들, 내 삶에서 요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대신할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돈.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돈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주인들이 등장할 때에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일어날 일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때가 가까움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의 종으로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참 의미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 드러난다는 얘깁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한 모든 행동들도 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의미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하도 물으니까 책을 썼습니다.
자기계발서로 분류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성공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돈을 많이 번 이 사건은 그 의미가 진짜 성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 때에 판가름 날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 때 다 헛된 것으로 판명될 테니까 정신 차려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들이 있는 이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마음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니까 정신 차려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곧바로 가라.

왜 그러냐?
핍박을 받고 죽게 돼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돈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사실 돈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밑에서 순교하고 박해받고 돈이 황제인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버겁고 어렵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나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다 있는 거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라는 얘깁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가운데 순교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도 손해 될 것도 없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 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요, 낭패요, 좌절이요, loser 요,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용되는 것들이

고 결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이 AD100년에 죽고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재림이 3500년에 일어났다, 그러면 3400년의 갭이 있잖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요한이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아! 3400년 만에 일어나니까 세상 많이 변했네?'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의식이 끊어지는 그 순간과 예수님이 오는 순간이 붙어버립니다.
3400년 동안 지구 위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400년 뒤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변화된 세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400 뒤에 태어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될 뿐이고 부활하면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의 의식이 있는 상태와 이어서 예수그리스도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재림이 3500년 뒤에 일어나도, 재림이 그렇다고 가정할 때, 지금 우리는 1500년 전이지만 재림은 임박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죽을 때의 의식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붙어버리게 되니까.
1500년이라는 시간은 시간 바깥으로 나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요한계시록이 신비한 책입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드러날지 모르겠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성령께서만 올바른 해석을 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은혜의 약속을 하나도 땅에 버리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